

◇……그래서 그말씀에쫓차 의암, 구암, 두반은 나훈받지 처음으로 도라가지고 손뽕, 신응익 임순호씨분과 그밖계몇분은 갖게 수날 새벽으로 마!도라갔다.

신사께서 혼자안드저서 누를기다리는듯이 제 시더니 그날아침 여섯시경에 송경인(宋敬仁)이 란자가 관뽕을나리고 달려들여 신사를레포하 였다.

◇……송경인이란자는 엇던도인한사람을뵈여서 갖치와서 신사의징과 신사께서 계신줄을 잘 알게되였는데 결국말하면 도인으로써 신사문화 에다니던사람이 돈을밧고 그와각치 깃을인드하 게된것이다.

신사께서 잡히사 찻서울로오지게되였고 서울 로오시사 하루 그제 평화문경무형(光化門警務廳은現在昌德宮侍衛隊있는곳)에까지우섯다.

평화문경무형에 상여인이나제지가 나여서 소문강옥(當時西小門監獄은現在日本人들의官舍인 西小門町七十五番地加藤俊平, 平田豊夫等の住宅)으로 옮겨 갖치섯다.

우리를나오도한 여머니되지는 해부수승은 다!가치 하신종신을올못하시요 우리노를위하야 형을바드기섯다.

그런데여 우리모들은 상해포즈의 형을한은노를 받합세이다 우리형애를 세를개만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대천사(大船將)를그리하하는등시에 해월신사가 형을바드기는 무 고로서 이배 해월신사수형 제이십구년미림 (海月神師受刑第二十九年週年紀念)되는 지날포월의일승리외로하야 해월사모님과 특히 그당시의 권후일을 받쳐보시던 천재우리포종형사 리종준씨를모시고 정년당으로세 해월 신사수형당에참관되(海月神師受刑會)를주최하게되여서

해월신사께서 차례게시온 강옥(監獄)자리와 공관을바드시던 평리원(平理院)자리와 포정(絞刑)을바드기은 무 관법원(陸軍法院)자리와 광희문(光熙門)자리와 신사역에올버리시였던자리와 빛나치참관하며 기라 그당시의 천 수사형을 두게되여다. 여허부리 그이하이올차근친친하모차!

# 海月神師의受刑前後實記

趙 基 乘

첫째, 정경시던이야기

◇……지금부력상십년전 (戊戌)을력 사일초오 일올당하섯다.그날이 대신사의 각도하시던 커 럽날이라.각도도인중 모모한분들이 초나올수날 지턱에 그제에 신사께서계시는 경원도원주군부 면승원(江原道原州郡北面)신사의역으로 모이게되 였다.

신사께서 의암, 구암파 그외여러분들에게 『이 변함없는 각각점으로도라가지 지내라』고 말씀 하신때 의암신사께서 『문도들이 모여서 향례를 지내는것은 해마다하는일이유저는 여이러담습 이계신것인가?』한주 신사께서 『여한든지 내말을 여이지말고 들으라』고 하섯다.

## 둘째, 리종훈씨가 순사에부드며 우를과결의하고서

지금 쫓겨사르게시는 리종훈씨는 신사께서 잠 허시여 서울로오신뒤에 꼭!성시담과 크라 여 러분파가리 서울로 가만이들어와서 신사의의귀나 일을보섯다.

◇……신사께서 처음에는 평화문경무형에갓치 여계심으로 리종훈씨는 신사를밧나뵈은기위하야 평화문경무형에 순검으로보냈섯다.돈뽕람을주기 트하고 순검에부러서 쫓지쫓지나오기는하였스나 ने무를보거나 간수하는자리가안이고 외무를보져 되였으며 또신사께서 그경무형에 계시지못하 고 서소문강옥으로 옮겨게되여서 그순검자리를 끌리고 돈뽕람을찾기에 한동안애를썼다한다.

◇……그다음에 리종훈(李鍾勳)씨는 다시 서 소문강옥청사(當時에監使라獄卒이라함은現在看守) 두루 김준식(西小門監獄廳使頭自金俊植)을차저가 서 나는본시 좌포청(左捕廳)에쳐서본있던사람인 데 거기에서나오게되섯다.그래서 저금살수가업 서서 동소문안 참외나다리해서 밧정수를해서근

◆……그날로 편지침담이 도착했다. 그 죄명에 대해서는  
 「편지 보았소. 여러도인다. 들잘잇슴  
 냇가? 여러도인들은 내가 리된것을  
 조금도 근심하지 말고 그저 잘들만 미드  
 시오. 내가 이리 되었슬수록 더욱더 나  
 미더야 됩니다. 아모 사람도 염사 우리도  
 의일은 더욱더 나 잘될터이니 그저 잘들  
 만미드라. 나는 설사 못해서 매우 괴롭게 남니  
 다. 그리고 돈있스면 오십량만 드려 보내 주시면 오  
 진하게 쓰실소」 하셨다.  
 ◆……그다음에도 여러 번 투신을 하였으나 가족  
 에 대한 말은 별르엄고 변법하 도의일만 중언  
 부인 부락 하치우.  
 평판이 좋아서 딱겨서 일 보지는 의양성사와여  
 러분들이 용상탕(簋參湯)을 드리며 돈오성량을 들  
 여 보내었는데 그 돈으로는 평선의 몸을 위하여 쓰신  
 일운으로 그 강을 안애 갖치 갖쳐 있는 여러 사람  
 들이 너머도 배가 곱하 하는 것을 당신이

근리살아가는데 하도 살기 어려워 우나 여태가 말할  
 못도 염사 초풍은 동색이라고 할수 염사 긴형을  
 차저 온것은 혹지 무손살아 간드리 가업슬가 해서 왔  
 습니다. 하고 인사를 못치고는 인하여 손수 집으로  
 트가서 술한리 술만 내었다. 그 자리에서 나여 결의  
 평례를 매저다. 그길로 김준식의 안해에게 「하주머  
 님 이리 보입니다!」 하고 큰가져 매도록, 풍손  
 하계 절을 찬드라 하고 나서 나여 막그르나아가 썩  
 조흔 담배배근을 사다가 「이것이 적고 변법치 못하나  
 마 아드며 남부교장수시오」 하고 틀었다.  
 그다음부터는 그저 날마다 그 정에 다니기 시작  
 하였다.  
 ◆……하로는 김준식을 차져서 「형님! 오름은  
 제가 대단히 진한 부락이 있어서 왔습니라」 무손  
 일인가요? 「말은 이안이라 저변에 말씀한 바와가  
 터 제가 밭이나 해서 파는데. 요사이에 었던  
 노파 한분이 차저와서 주인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취취도 저 손도 아모것도 염사 다  
 만들은 두배의 간이 살다가 자괴의 남편  
 은 병정들에게 부들려 서울로와서 서

◆……리준환씨는 날마다 김준식 집내에 왕왕으로  
 전사해서 언제 재판바드러가시는 것을 알고 그날이  
 면 새벽 조참을 하시고서는 그 감을 분발케 미리  
 가서 이리저리 거닐면서 기마리다가 열지나 열  
 한지 썩되면 신사께서 나오심을 보이게 되는데 신  
 사께서 아모리 괴물이 장대하 신어룬이 질지라도 나  
 히칠성이 세나 되시고 수사 동안 응중에게서 고 걸  
 해서 병환으로 오래 수안개 신어룬으로서 특에다  
 전주관을 쓰시고 나아 오시는 열을 보이면 썩가지  
 려고 창자가 안이 지는 듯하였다 한다.  
 그 전주관이 하도 부거워서 응중한 사람이 갈압며  
 려를 판들코야 평리원으로부터 오시게 되려 한다.

셋째, 평리원에 심판바드려다니  
 시드모양.

배감한 신 것과 가차안타삼게 녀서서 그  
 돈을 다 들여서 역을 만히 하여서 그 안  
 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 가차 배를 깨며  
 었다 한다. 그때의 감옥에는 오를파가 억중쳐  
 를 못하고 그만한 자유는 었었다 한다.

소문감옥에 있다고 그 수직을 었지 하던지  
 주인이 좀알아달라와 고후나 일을 형님한테  
 박게야 어디가서 말해볼 곳이 있겠습니까? 형님!  
 저는 그 일을 봤습니라 「그의 일은 누구라고 함  
 뎁가?」 「최법현이라고 하더라」 「최법현이라 고는 업  
 고 최법후터라고는 었지요」 「아! 그것이 최법현을  
 잘못알고 최법후터라고 하기가 쉽겠지요」 「그리  
 면 재판질 그외가 생기기 틀었리 케생진이라 됩니까?」  
 「수일이 안히나고 며더가 버서 전 문히라 됩니까?」  
 「아! 그러면 을수!」 하엿다. 「그러면 그도인이  
 이저간에 문은 안히 제신가요?」 「판사의 말이」 하  
 ! 었지음 그도인이 설사 틀해서 매우 고생을 하는 건  
 요」 한다. 그래서 신사께서 병환이 중하심을 알게  
 되엿다. 그다음날은 다시 편지를 써가 지고와서  
 「그르파가 이편지를 었리 케하던지 저커 남편에  
 게 전하달라 타고 하는데 참으르 남에 일이지면은  
 문물나는 일입니다. 형님께서 아모썩 썩 전하여 주  
 서야 되겠습니라」 하엿다. 「하! 그일은 매우 힘드  
 는 일인데!」 「그러나 형님이 전해 주실마음만 있  
 슌면 못하실리야 었습니까? 이 아우의 일로 알으시고  
 종전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락 하엿다.

한다.

다섯째, 광희문밖에 버린신사의 시례를거름

◇……저금에는 사형을 정형한 뒤 이십사 시간이 면 내다 못지만 그 여의범에는 죽인 뒤 사후만에야 버다 버리게 되었었다. 그래서 신사의 시례를 초사일에 통죄판에게 다 내뒀었다.

선례를 내다 못기만 기다리고 있던 죄종은 여는 그 날 저녁으로 김춘식파가 리 상여군두사랑을 따라 고이슬이슬하자 니여 뺨죄문을 열어 나가다가 판공에 지진가서 본즉 그 여죄포령에 포로두목(捕控頭目)으로 있는 민홍오라는 민배수역이라고 별명을 가진 배가 송환자가 문종에 역적하고 있는 것이 얻었도이다. 삼씩 놀래여서 송그런이도라서 죄종대문으로 나가서 성밖길로 드라서 다시 평회문밖으로 가니 그 여는 감관한 밤일뿐만 아니라 비가 막 드리붓드서 쓰다지기 때문에 다 너는 사람이 타고는 하나도 없고 직히든 사람들도 다 도라가고 말았다.

◇……그런서 죄종은 성안에서 풀려하였는

드러오시다가는 '아이 고루야! 아이 고루야' '하시면서 한두번씩은 그 때로 길에 안드서서 여셔야 오지 않나 한다. 그때에 죄종은 신사 의젓을 썩 따다니면서 보였는데 신사! 두루 허바다 보지 않나, 여덜째에는 뭇! 미감하지는 따도 있겠는데 그런 때에 제일 퍼트운 것은 작구 눈물이 싹다 지는데 그 작위를 져쳐오는 사람이 들으게 하기와 엇지하면 이 눈물이 못나오게 할가? 형이 재탈고 흥이여다 한다. 그리케다 니시면서 재판받기를 심여지 못할지였다.

◇……그리하다가 풀원일일에는 갑자스럼게 좌도라정(左道亂正律)이라는 죄령으로서 사형선고를 받드섯다.

그리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초이훈날로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었다.

무수외담으로 그와가 리 갑자스럼게 판결을 하였으며 판결이 나자 곳 집행하였는가 생각할 때에는 스름이 세친다. 그 때에 신사의 병환이 나날이 침중하서서 병세가 위태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한사 밧비사형을 집행치 않으면 병사할 터라 가되야 그런 큰 죄인을 병으로 죽여 죽게 한다는 것은 나라

외래면으로나 정부의 위신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그와가 리 갑자스럼게 판결해서 그대로 못 하야 사형을 집행하였던 것이라 한다. 얼마나 놀라운가?

넷째, 신사! 육군법원에서 硃형 을당하심

◇……복원의 일오정에 서 소문감옥에서 신사를 육군법원(前左捕廳)이요 현京城 授恩 湖五九 國民協會와時事詳論社가 빌려드리었다는 總督府 所 管 署 人 代 바두團成社(不入)으로 옮겨가 두었다가 그날 오후 다섯시쯤에 硃형(絞刑)으로 사형을 집행하였었다 한다.

◇……그런데 한가지는 부당한 일이 있는 것은 갑오년 동학혁명 때에 판관측안정부 때(官軍側安城部大隊)의 창령(熱領)리선재(李善在)가 동학군에 계 전사하였는데 그의 아들 되는 자가 항상 자귀아 버지의 원수를 갚고져 하던 중에 신사께서 사형당하심을 알고 신사의 시체가 육군법원 硃형장(陸軍法院 絞刑場)에 들어올에서 있을 밤을 지나는 동안에 뒷담처럼 전대로 밤에 넘어뜨려와서 신사 시체에 위아머리를 나무로 관타하야 크게 상하게 하였었다

외초중하나, 황초다섯가락, 우산하나, 베타판, 철성판 하나를 가지고 길준식과 피리야 조하고 세 위는 찌는 듯함 피수 최시형(東學魁首 崔時亨)이라고 괴로울 씨 죽은 신사의 무덤을 차지다.

초중과 우산을 길준식에 걸터리고 상여군두사랑을 따라고. 시례를 파내는데 일인군들은 시체를 손에 대이기가 슬퍼서, 고티는 땅이로 쳐들추려한다. '아! 아! 안되! 안되!' 아모리 남의 시체가 기르 우리를 이 돈을 받고 하여 주는 일인데 그리 해선 못한다. 너이 두사람이 하체를 들라. 내 상체를 들러이니 '하야 무덤 속에서 시례를 땅우에다 쓰정어내어 모서 못코 본 79 죽 음에는 아주 못쓰게 된 허니 요한 것이 감겨있을 뿐이다. 그 요는 물어서 두루 그 무덤속에다 버리고 시체를 그대로 철성판우에다 묻터 모시고 엇터 케할 수가 업서서 메를 그대로 작구 초중감으면서 머리를 만지게 되었는데 머리에에는 베타크게 상해서 쳐자진 것을 다 시파 두맛추어서 싸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다시 그 무덤을 처음 파가 터만 들고 그 왜를 다 시쳐다 못코는 그 내리 북는 비속으로 밤을 세우면 서풍나루를 건너 평주(廣州)에 일오리 의암, 구암, 춘암, 외에 여러 분묘인 을 갖나서 그곳 리상하씨의

